

目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凡例

參考書目

目次

魯襄公 五…… 9

二十六年(甲寅 B.C.547)… 9 二十八年(丙辰 B.C.545)… 81
二十七年(乙卯 B.C.546)… 49

魯襄公 六…… 114

二十九年(丁巳 B.C.544)… 114 三十一年(己未 B.C.542)… 178
三十年 (戊午 B.C.543)… 149

魯昭公 一…… 208

元年(庚申 B.C.541)… 211 三年(壬戌 B.C.539)… 284
二年(辛酉 B.C.540)… 274

魯昭公 二…… 311

四年(癸亥, B.C.538)… 311 六年(乙丑 B.C.536)… 373
五年(甲子, B.C.537)… 345 七年(丙寅 B.C.535)… 389

魯襄公 五

<二十六年, 甲寅 B.C.547>

【傳】 會于夷儀之歲에 齊人城邾¹⁾ 하다 其五月에 秦晉爲成²⁾ 하야 晉韓起如秦涖盟하
고 秦伯車如晉涖盟³⁾ 하야 成而不結⁴⁾ 하다

諸侯가 夷儀에서 회합하던 해에 齊人이 邾에 城을 쌓았다. 그해 5월에 秦나라와 晉나라가 和親하기 위해 晉나라의 韓起가 秦나라에 가서 結盟에 참가하고, 秦나라의 伯車가 晉나라에 가서 結盟에 참가하여 化친을 맺었으나 鞏固하지 못하였다.

- 1) 在二十四年 不直言會夷儀者 別二十五年夷儀會
24년에 있었다. 夷儀에서 회합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夷儀에서 회합한 해라고 말한> 것은 25년에 있었던 夷儀의 회합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 2) [附注] 林曰 自十四年十三國伐秦 二國不平 至今年始爲平
[부주] 林: 14년에 晉나라가 열세 나라를 거느리고 秦나라를 討伐한 때로부터 晉과 秦 두 나라가 不和하였는데, 금년에 이르러 비로소 和平하였다.
 - 3) 伯車 秦伯之弟鍼也
伯車는 秦伯의 아우 鍼이다.
 - 4) 不結固也 傳爲後年修成起本 當繼前年之末 而特跳此^{*)}者 傳寫失之
굳게 맺지 못한 것이다. 傳文은 後年에 修成한 張本을 말한 것이니, 前年 末에 붙여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行(항)을 바꾸어 여기에 기록한 것은 傳寫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 *) 譯註] 跳此 : 跳는 책을 베낄 때 줄을 바꾸는 것이다.

【經】 二十有六年 春王二月辛卯에 衛甯喜弑其君剽하
26년 봄 周王 2월 辛卯日에 衛나라 甯喜가 그 임금 剽를 弑害하였다.

【經】 衛孫林父入于戚以叛¹⁾하

衛나라 孫林父가 戚邑으로 들어가 叛亂을 일으켰다.

- 1) 衍雖未居位 林父專邑背國 猶爲叛也^{*1)} [附注] 林曰 書叛始於此 凡叛 賤者不書 是故成十七年 齊高無咎之子弱以盧叛 襄二十九年 齊高止之子豎以盧叛不書 必卿佐^{*2)}而後書 然宋魚石入于彭城 晉欒盈入于曲沃 未可以書叛 必若衛孫林父而後可以書叛 書叛必不能討者也 衛侯 衍(獻公)이 이때 비록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이지만 林父가 邑을 점거하여 나라를 배반하였으니, 叛亂을 일으킨 것과 같다.

[부주] 林: 背叛을 이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凡에 의하면 賤者가 叛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成公 17년에 齊나라 高無咎의 아들 弱이 盧邑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背叛한 것과, 襄公 29년에 齊나라 高止의 아들 豎가 盧邑의 무리를 거느리고 背叛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반드시 卿佐의 背叛인 뒤에야 기록한다. 그러나 成公 18년에 宋나라 魚石이 彭城으로 들어간 것과 襄公 23년에 欒盈이 曲沃으로 들어간 것은 ‘叛’으로 기록할 수 없고, 반드시 衛나라 孫林父 같은 뒤에야 ‘叛’으로 기록할 수 있다. 반드시 토벌할 수 없는 자에 한해 ‘叛’으로 기록한다.

- * 1) 역주] 猶爲叛也 : 叛은 신하가 임금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때 衍이 아직 임금이 되기 전이어서 衛나라에는 임금이 없었으니, 孫林父가 난을 일으킨 것을 ‘叛’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孫林父가 邑을 占有하여 나라를 背叛한 것이 叛亂한 것과 같기 때문에 ‘叛’으로 기록했다는 말이다.
- * 2) 역주] 卿佐 : 國君을 輔佐하는 執政大臣을 이른다.

【經】 甲午에 衛侯衍復歸于衛¹⁾ 하다

甲午日에 衛侯 衍(獻公)이 衛나라로 復歸하였다.

- 1) 復其位曰復歸 名與不名 傳無義例

그 位를 회복하는 것을 復歸라 한다. 이름을 기록한 것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傳에 義例가 없다.

【經】 夏에 晉侯使荀吳來聘¹⁾ 하다

여름에 晉侯가 荀吳를 보내어 와서 聘問하였다.

- 1) 吳 荀偃子

吳는 荀偃의 아들이다.

【經】公會晉人鄭良霄宋人曹人于澶淵¹⁾하다

襄公이 晉人·鄭나라 良霄·宋人·曹人과 澶淵에서 會合하였다.

1) 卿會公侯 皆應貶 方責宋向戌後期 故書良霄以駁[駁]^{*}之 若皆稱人 則嫌向戌直以會公貶之

[附注] 林曰 澶淵 近戚地 蓋以討衛而疆戚田也

卿이 公·侯와 회합한 경우에는 모든 卿을 貶下하는 것이 합당하니, <良霄도 폄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바야흐로 宋나라 向戌이 기한이 지난 뒤에 온 것을 貶責하였으므로 ‘良霄’를 기록하여 그를 폄책한 것이다. 만약 모두를 ‘人’으로 칭하면 向戌도 公과 會合한 罪만으로 貶下된 것으로 의심할 것이고, <기한이 지난 뒤에 온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良霄의 이름을 기록하여, 向戌을 ‘人’으로 貶下한 것이 단지 公과 會合하였기 때문만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부주] 林: 澶淵은 戚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곳에서 회합한 것은> 衛나라를 토벌하고서 戚의 土地를 區劃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 역주] 底本에는 ‘駁’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駁’으로 바로잡았다.

【經】秋에 宋公殺其世子痤¹⁾하다

가을에 宋公이 그 世子 痤를 살해하였다.

1) 稱君以殺 惡其父子相殘害

임금이 죽였다고 칭한 것은 그 父子가 서로 殘害한 것을 미워해서이다.

【經】晉人執衛甯喜하다

晉人이 衛나라 甯喜를 잡았다.

【經】八月壬午에 許男甯卒于楚¹⁾하다

8월 壬午日에 許男 甯이 楚나라에서 卒하였다.

1) 未司[同]^{*}盟 而赴以名

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으로 赴告하였기 때문에 經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 역주] 저본에는 ‘司’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同’으로 바로잡았다.

【經】冬에 楚子蔡侯陳侯伐鄭하다

겨울에 楚子 · 蔡侯 · 陳侯가 鄭나라를 토벌하였다.